P-101

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신종괴의 임상적 특성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

이미정 · 신동호 · 장태익 · 박정탁 · 김좌경 · 한승혁
유태현 · 김범석 · 강신욱 · 이호영 · 최규헌

Renal Masses in Patients Treated with Dialysis for End-stage Renal Disease

Mi Jung Lee, Dong Ho Shin, Tae Ik Chang, Jung Tak Park, Jwa-Kyung Kim
Seung Hyeok Han, Tae Hyun Yoo, Beom Seok Kim, Shin-Wook Kang, Ho Yung Lee, Kyu Hun Choi

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ivison of nephrology

목 적 : 말기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악성 종양, 특히 신세포암의 발생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그러나 국내에서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세포암의 임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, 신세포암 이외의 양성 신종괴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신종괴의 임상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.

방 법 : 199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신종괴가 발견되어 전 혹은 부분 신절제술을 시행 받은 186명 중, 투석 전에 신종괴가 발견되었거나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를 제외한 총 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과 신종괴의 조직학 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결 과 :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48.3±13.2세였고, 남자가 21명, 여자가 17명이었다. 원인 신질환으로는 만성 사구체신염과 고혈압이 각각 13명 (34.2%)으로 가장 흔했고, 역류성 신질환이 5명 (13.2%),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 4명 (10.5%)이었다. 혈액투석 환자가 20명 (52.6%), 복막투석 환자가 18명 (47.4%)이었고, 평균 투석 기간은 106.2±62.4개월 이었다.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, 신종괴는 대부분 (36예, 91.3%) 한쪽 신장에 국한 되어 있었으나, 2예 (8.7%)에서는 양 쪽 신장 모두에서 발견되었다. 28예 (73.7%)는 단일 병변 이었으나, 다수의 병변도 8예 (26.3%)에서 관찰 되었다. 종괴의 크기는 평균 3.4±2.3 cm이었다. 상 염색체 우성 다낭신 이외의 환자에서도 다수의 후천성 낭종이 23예 (67.6%)에서 관찰되었다. 종괴의 조직학적 검사상 23예 (60.5%)에서 악성 종양이 관찰 되었는데, 이중 21예 (91.3%)는 신세포암이었고, 나머지 2예 (8.7%)는 유두상 요로상피세포암이었다. 신세포암의 조직학적 형태는 투명세포형이 16예 (76.2%)로 가장 흔하였고, 유두상형이 3예 (14.3%), 그리고 투명세포형과 유두상형이 혼합된 경우와 다방 낭성형이 각각 1예 (4.7%)였다. 반면에, 15예 (39.5%)에서는 양성 종양으로 판명되었는데, 혈종이 6예 (40%), 농양이 2예 (26.7%), 혈관근육지방종과 초기병변이 각각 2예 (13.3%)였고, 합병낭종이 1예 (6.7%) 관찰되었다. 악성종양과 양성종양 두 군으로 나누어 임상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, 악성 종양군에서 유의하게 투석기간 (122.3±61.8개월: 81.1±56.7개월, $p<0.05$)이 길었고, 후천성 신낭종 (87%: 46.7%, $p<0.01$)을 동반한 경우가 더 빈번하였다.

결 론 :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신장절제술로 확인 된 신종괴의 대부분은 신세포암이었으며, 양성 종양에 비해 후천성 신낭종의 동반과 긴 투석기간과 연관되어 있었다.

Key Words : 신종괴, 신세포암, 말기신부전증
Renal mass, Renal cell carcinoma, End stage renal disease